

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

7/1부터 시행되는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절세혜택 기대
전자책, 중고책, 티켓구매 수수료, 배송료 및 부가상품도 소득공제 대상
근로시간 축소와 소득공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

7/1부터 시행되는 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절세혜택

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의 하나인 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의 합의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3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5%인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' 소득공제에,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 30%의 공제율을 적용해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.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%가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
전자책, 중고책, 티켓구매 수수료, 배송료 및 부가상품도 공제 대상

도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착한 서적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책도 포함된다. 중고책은 저자 · 발행인 · 발행일 · 출판사 · ISBN이 표기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. 다만 잡지나 정기간행물을 구매하거나 서적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공연은 공연법에 따라 배우 · 무용수 ·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'실연'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영화, 방송 등 녹화된 영상을 관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. 티켓 구입에 포함되는 예매 · 취소 수수료, 배송료도 공연비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. 프로그램북이나 CD, DVD 등 부가상품도 공연 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판매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근로시간 축소와 소득공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

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적이나 공연과 같은 여가비 지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. 2000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프랑스 조사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'주 35시간제가 프랑스인 생활에 미친 영향 평가'를 보면 2000년 이후 전체 인구의 46%가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책과 음반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. 더구나 한국은 근로시간 축소에 소득공제 제도가 추가되어 서적 구매 및 공연 관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큰 만큼 예림당, 삼성출판사, 예스24, 인터파크 등 서적 출판 및 유통, 공연티켓 판매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.

추희엽

hychoo@truefriend.com